

추 도 사

오늘 한국불교의 중심, 범어사와 조계사에는 슬픔과 추모가 가득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언제나 푸근함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고동색 법의의 주인공, 검은 빨데 안경 너머 인자한 미소로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주시던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현시대의 포대화상과 작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혜명당(慧命堂) 무진장(無盡藏) 대중사(大宗師)님!

종단의 3대 사업의 하나로 포교가 지정되었기는 하지만 포교의 개념이나 방법은 생소하고, 종무행정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 모든 과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셨기에, 스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포교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종단 정화라는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던 우리 종단을 오직 포교라는 대원력 하나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신 분이 바로 스님이십니다.

어디서나 법을 청하는 자리가 있으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달려가 법을 설해주셨고, 대승과 소승, 온갖 경전과 선어록에 이르기까지 두루 막힘이 없는 법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량광대한 불법대해(佛法大海)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스님에 의해 불법에 눈을 뜬 이가 그 얼마이며, 스님에 의해 불교에 귀의한 이가 또한 그 얼마이겠습니까?

한국불교에 포교의 역할이 절실했던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40년을 하루같이 오로지 포교에 매진하셨으니 실로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전에 한반도의 포교를 서원하고 이 땅에 하생하신 부루나 존자의 화현이라 모두가 여기고 있습니다. 범어사 동산스님의 문하에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고 이 때 받은 법명이 바로 혜명(慧命)이니 ‘지혜의 생명,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가는 사명’이라는 뜻과 스님의 삶이 결코 다름이 없었습니다.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근검절약하시며 신도들에게 승복 한 벌 받는 법이 없으셨고 주지 소임도 원하지 않으셨듯이, 도심지 중의 도심인 서울의 중심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포교에 대한 일념만으로 수많은 대중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큰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불자들은 가슴 깊은 아쉬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혜명당 무진장 대중사님!

꿀벌 한 마리 살 것 같지 않은 이 도심에서도 국화향 따라 벌과 나비가 날아오듯이
각박한 도시의 한복판에서도 스님의 법향은 멀리 가는 향기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중생들 다 놓아두시고 어느 세계의 중
생을 교화하러 떠나십니까?

오늘 이곳에 가득한 가을국화는 스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조화(弔花)가 아니라 무량
복덕을 지으시고 떠나시는 이 시대의 부루나존자를 배웅하는 미소입니다. 향과 꽃
으로 배웅하오니 다시 향과 꽃으로 청하올 그 날에 속히 돌아오시어 청아한 법음으
로 저희의 눈과 귀 밝혀 주소서.

불기2557(2013)년 9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